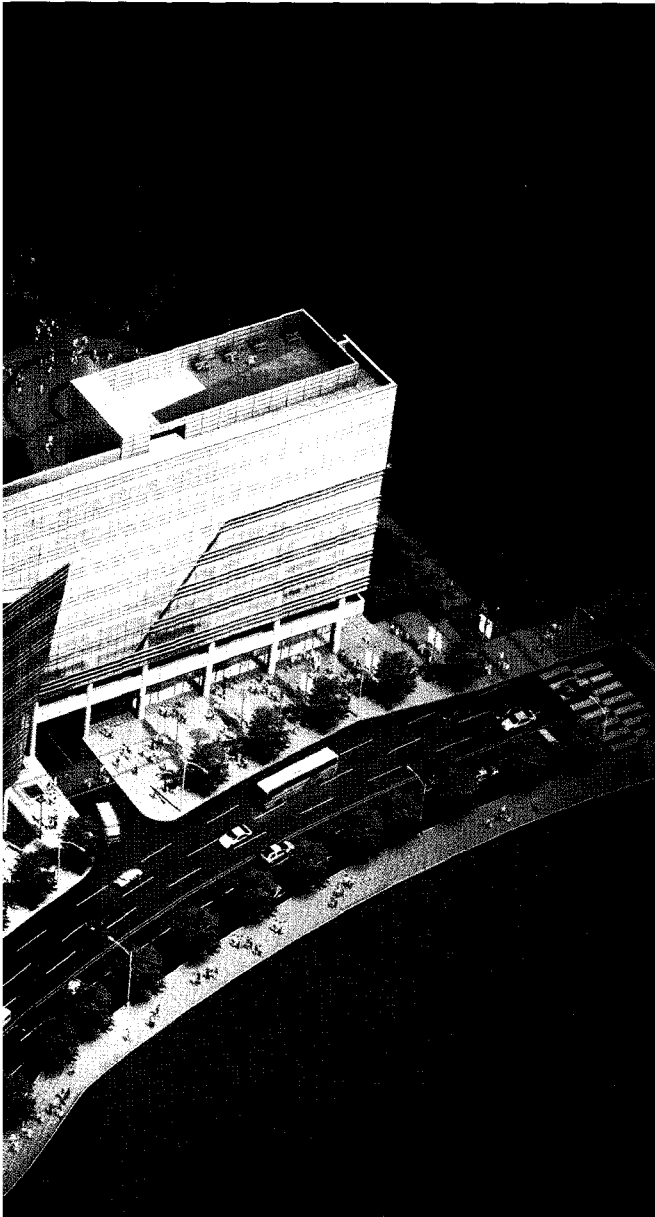


동남권 유통단지 '나' 블럭

현대산업개발
HYUNDAI DEVELOPMENT COMPANY
ENGINEERING & CONSTRUCTION

현대산업개발을 찾아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280번지 일대에는 과거 청계천 이주상가들이 입주할 대규모 유통단지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장지동 512,966㎡ 일대에 펼쳐지고 있는 동남권 유통단지 '가' '나' '다' 블럭이 바로 그 것으로 이중 고객감동을 목표로 최적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나" 블럭 현대산업개발 현장을 찾았다.



평가에 앞서 동남권유통단지 현장에 선 SH공사 평가단과 현장 관계자들
(사진 중앙 우측이 한경보 회장)

지난 6월 9일 시공평가가 있었던 이 현장을 방문하
자 현대산업개발 주재임원 김재중 상무와 김상근 현장
대리인이 반갑게 맞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공평가
가 예정되어 있기에 현장의 임·직원 모두는 모두 분주
한 모습이었다.

김상근 현장대리인은 이곳 현장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
으로서는 보기 드문 화려한 외관과 튼튼한 구조로 지하5
층, 지상10층의 규모로 건축되고 있으며 전문상가와 식
당가도 조성되는 복합적인 형태의 공장형 아파트로 기
존의 아파트형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건축물임을 강조
한다. 특히, 내구성 및 안전성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이
며,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만한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
다고 자신 있게 밝힌다.

120,000㎡의 연면적에 대지면적 13,354㎡인 건축물
을 2006년 10월에 착공하여 2008년 10월20일 완공시킨
다는 목표로 이미 마감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하
는 김상근 현장대리인은 이 현장에 대해 가장 먼저 안전
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복잡 다양한 구조
와 층간높이가 높아 추락사고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전
도사고 등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다보니 완벽한 안전시
설, 사전 사고 예방 계획, 근로자 안전교육 관리 등 현대
산업개발이 추구하고 있는 안전목표 실천 ‘CLEAN 5’
를 최 일선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현장이 아닐까 생각
된다.”고 말한다.



동남권유통단지 '나' 블럭을 점검중인 SH공사 평가단에 현장 설명중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시공평가단 강평을 경청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김상근 현장대리인

I'PARK “실천 CLEAN 5” 생활화로 무재해 무결점 사업장 구현

동남권 유통단지 현장은 초대형 현장이며 하루 출역인 원도 7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관계로 현장 안전, 환경 관리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07:00에 시작하는 아침조회는 전 직원과 근로자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아침인사, 안전보호구 지적확인, Touch & call, 당일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협력업체 책임자보고 등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전체 조회 후에는 공중별 미팅을 통한 당일 위험 작업 예지 활동을 생활화해 안전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부터 출발한다는 기본을 세웠다. 또한 매일 직원 1명과 해당업체 책임자가 일일 안전 순찰조를 지정 운영토록 해 작업전, 중, 후 안전점검이 생활화 되도록 하였으며 당일 불안전 상태 및 행동은 1인1일 원 포인트 현황판에 직접 수기로 적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현장이다.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동남권 유통단지 현장의 협력업체 관리자는 모두 안전 관리자이기에 모든 협력업체는 현장 설명회시 입찰 불 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상주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관리 전담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안전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자가 상주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공지에서부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회의,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 등에서부터 자발적인 안전업무가 실시 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매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회의시에는 주간 안전 점검 실시 후 강평을 통한 업체별 불안전상태 및 행동들을 조치토록 해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현장이다.

RFID를 통한 신규 채용 근로자 관리 시스템

● 신규 채용자 교육의 중점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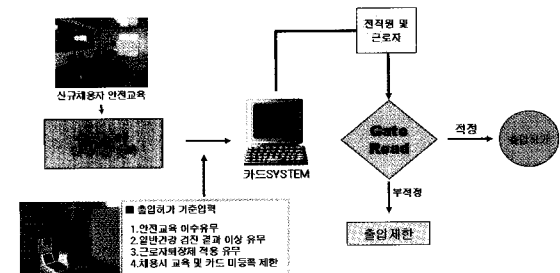
재해율을 집계해 보면 보통 신규 채용 된지 7일 이내의 사고율이 전체 재해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신규채용자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신규근로자 채용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심을 한 끝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근로자 전산 등록, 근로자 개인 등록카드 작성 및 발부를 통해 현장 출입 시 체크카드 확인을 해야만 현장에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규채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근로자 인력관리 시스템 운영(RFID)

현장 출입근로자의 인적사항, 교육현황, 신체검사 결과 이상유무 및 근로자 퇴장제도 적용 유무 등 전반적 근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관리효율의 극대화.

• 지문인식 시스템 FLOW

신규채용 교육 이수 후 지문등록 → 출입기준을 설정 → 출입관리 → 현장 출입기준 부적합자 출입제한



● 불량 근로자 3진 아웃제도 운영

현장 내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3대 재해 [추락사고, 낙하사고, 전기 감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해 3진 아웃제를 실시함으로써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근로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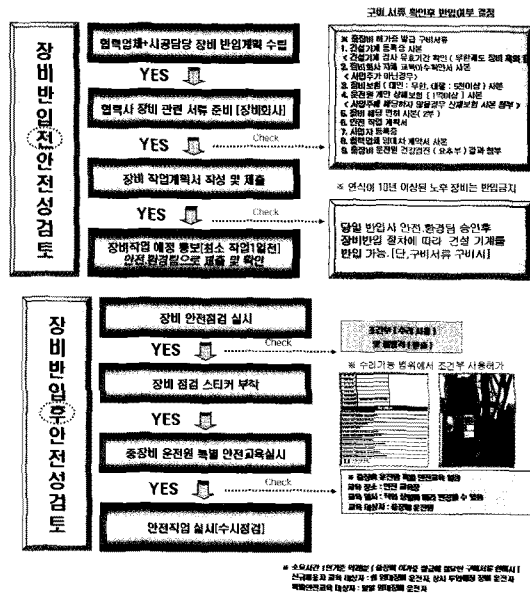


자동 퇴출되도록 적용하였고 3회 경고가 누적된 작업자는 RFID 전산시스템에 적용되어 추후 현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2회 이상 경고 누적자는 철저한 자기안전관리를 통하여 특별교육 및 정신교육을 통한 1회 경고 삭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3진 아웃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매월 우수근로자 포상 및 안전O.X퀴즈대회, 매월4일 안전캠페인, 분기별 웃으며 출근하기 캠페인 실시 등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불안전 행동 및 상태를 사전에 예방 조치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비관리로 대형 사고 예방

장비사고는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기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철저를 기하고 있는 이 현장은 특히, 터파기 공중 진행시 24시간 철야로 장비 작업을 실시하였기에 장비 안전관리는 더욱 철실했었다.



동남권유통단지 현대산업개발 주재임원 김재중 상무
김재중 상무는 저서로 건축공사 들여다보기와 효율적 공사관리 등이 있으며, 시집 '당신의 정원을 집필한 바 있다. 소장으로 근무한 화곡 재건축 아파트 현장이 건설교통부 최우수 현장과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을 수상한 실력과 감성을 겸비한 외유내강형 실용적주의적 인물이다.

지하터파기 30M 지하5층 규모에 하루 통행되는 덤프 트럭만도 수십 대에 대형 크레인, 백호우등 대형 건설 장비가 끊임없이 동원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장비 안전관리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당 현장은 장비 반입절차를 SYSTEM화 시켜 장비반입 전 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계획을 수립·운영 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는 목표로 무재해 달성!

모든 재해는 사전에 예방 하고 조치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2006년10월 착공이후 금일까지 당사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실천 'CLEAN 5!' 를 현장에 적용시켜 사전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물론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동남권 유통단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은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2007년 서울특별시 SH공사 전 현장에서 당당히 안전, 품질 1등을 수상하며 발주처 및 서울 시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바 있으며 현재도 무재해 2배를 향하여 순항중이다.

동남권 유통단지 현대산업개발 현장 전 직원은 오늘도 단 한 건의 사고없이 완벽한 무재해·완벽품질 목표로 고객에 보답하기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